

## 총론



## 부산시민의 유치 열기와 염원이 모아져야

### BIE 회원국 표심 잡을 수 있어

부산연구원 편집위원회

□ 부산이 2030월드엑스포 본격 유치에 나섰다. 엑스포는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메가 이벤트의 하나다. 인류의 업적이나 미래 전망을 전시하고 공동의 문제에 대한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경제문화 올림픽이다.

부산이 2030월드엑스포를 개최하면 우리나라는 올림픽, 월드컵, 엑스포 등 세계 3대 이벤트를 모두 개최하는 7번째 국가가 된다. 지금까지 3대 행사를 모두 개최한 나라는 프랑스, 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 6개국이다.

엑스포는 BIE(국제박람회기구·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s)에 따르면 ‘몰입적인 활동을 통해 선택된 테마 내에서의 여정을 제공함으로써 인류가 직면한 근본적인 도전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 전념하는 글로벌 행사’로 규정된다. 또한 BIE의 공인 여부에 따라 공인엑스포와 비

공인 엑스포로 나뉘고, 공인엑스포는 인정엑스포(Recognized Exposition)와 등록엑스포(Registered Exposition)로 구분된다. 국내에서 열린 대전 과학엑스포(1993년), 여수 해양엑스포(2012년)는 인정엑스포였다. 우리나라는 등록엑스포인 월드엑스포를 개최한 적은 없다.

2030부산월드엑스포는 가덕신공항 건설과 함께 부산의 재도약을 위해 꼭 필요한 메가 이벤트로 부산의 오랜 숙원이며 꿈이다. 개최에 성공할 경우 국가 브랜드는 물론 부산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리는 엄청난 효과가 예상된다. 6개월의 행사 기간 동안 5천만 명 이상의 국내외 관람객이 부산을 찾고 무려 61조에 이르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엑스포 개최를 통해 부산은 단기적으로 물류, 관광 마이스, 도·소매업 등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

기적으로는 글로벌기업 유치 및 창업 생태계 혁신 등을 통해 산업구조를 재창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마디로 부산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경제축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올해 유치 신청을 시작으로 2022년 최종 유치계획서(Bid Dossier) 제출, 2023년 BIE 현지실사를 거쳐 2023년 총회에서 169개 회원국 투표를 통해 개최 도시가 확정된다.

부산발전포럼 1, 2월호는 2030부산월드엑스포의 유치를 위한 범시민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특집을 ‘2030부산월드엑스포, 세계 일류도시를 향한 부산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꾸몄다. 특집은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전 본격화’, ‘개최 최적지 부산의 매력과 엑스포 비전’, ‘역대 등록엑스포 주제와 부산 엑스포 주제 방향’, ‘교통인프라와 엑스포 유치 경쟁력 강화 방안’,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성공 전략과 과제’의 5개로 구성됐다.

부산은 월드엑스포 개최지로서 뛰어난 장점이 있다. 입지의 우위성과 탁월한 교통인프라, 풍부한 관광문화자원과 사회인프라, 대형 국제행사 개최 경험과 글로벌 컨벤션 역량,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등 엑스포 유치에 필수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 여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민관협력의 강력한 유치 의지를 빼놓을 수 없다.

특히 월드엑스포 개최는 교통여건이 중요한데, 부산은 도시 전역에 걸쳐 매우 성숙한 교통 인프라와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부산은 KTX를 포함한 철도, 광역도로망 및 고속도로 등의 국내의 주요 기종착지이며, 동북아의 해상교통 중심지로서 물류뿐 아니라 여객수송의 국제터미널이다.

국제수요 충족을 위한 각종 항공 노선 부족이 약점으로 거론되는데, 이는 가덕신공항 건설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는 주제 선정도 중요하다. 엑스포 전체 그림을 그리는 데 필요한 핵심 비전이기 때문이다. 부산은 인류 공존과 번영을 위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는 협력과 조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엑스포는 지역사회와 시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역대 성공한 엑스포는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가 큰 몫을 했다. 부산시민 모두가 엑스포를 인지하고 엑스포가 개최되면 능동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부산시민의 유치 열기와 염원이 모아지면 800만 부·울·경으로 이어지고, 전국으로 확대되고, 전 세계에 알려져 BIE 회원국들의 표심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